

<해외직구식품>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제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입차단 조치
- 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사전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Omeprazole)’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품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오메프라졸 포함 총 290종)

* 식약처는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공개(3,453개, '24.7.4.기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상시 제공(①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 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광고 >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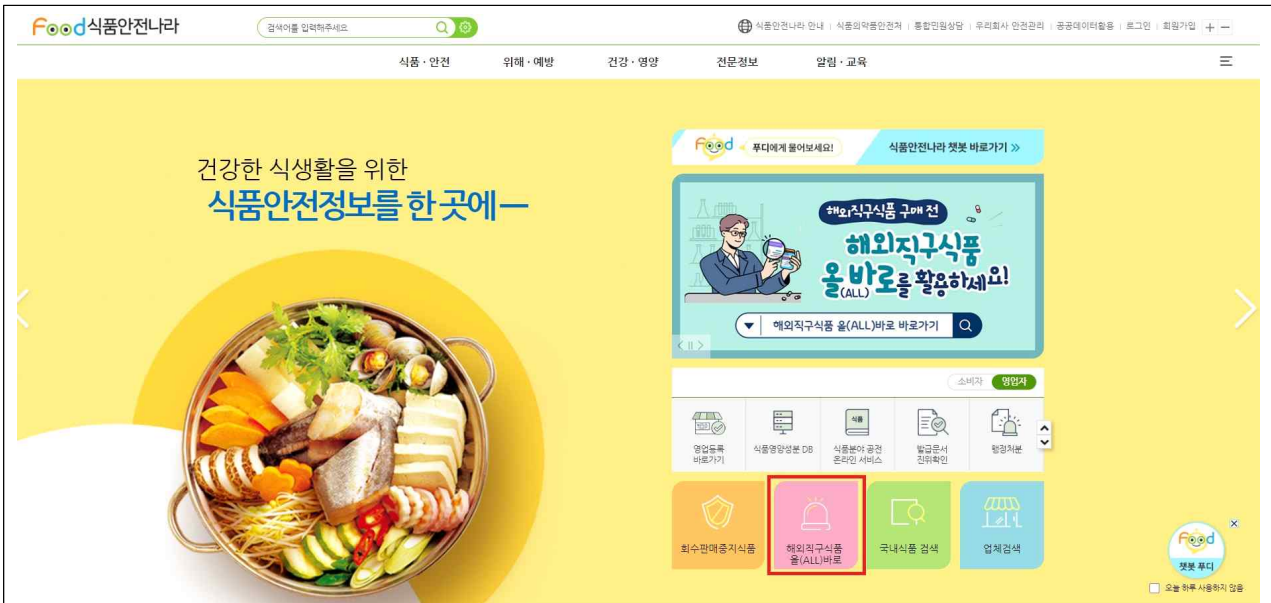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창근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김은정 (043-719-6256)
협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	책임자	과 장	박희라 (043-719-1751)
		담당자	사무관	김은경 (043-719-1752)
협조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손경훈 (043-719-5301)
		담당자	연구관	최장덕 (043-719-5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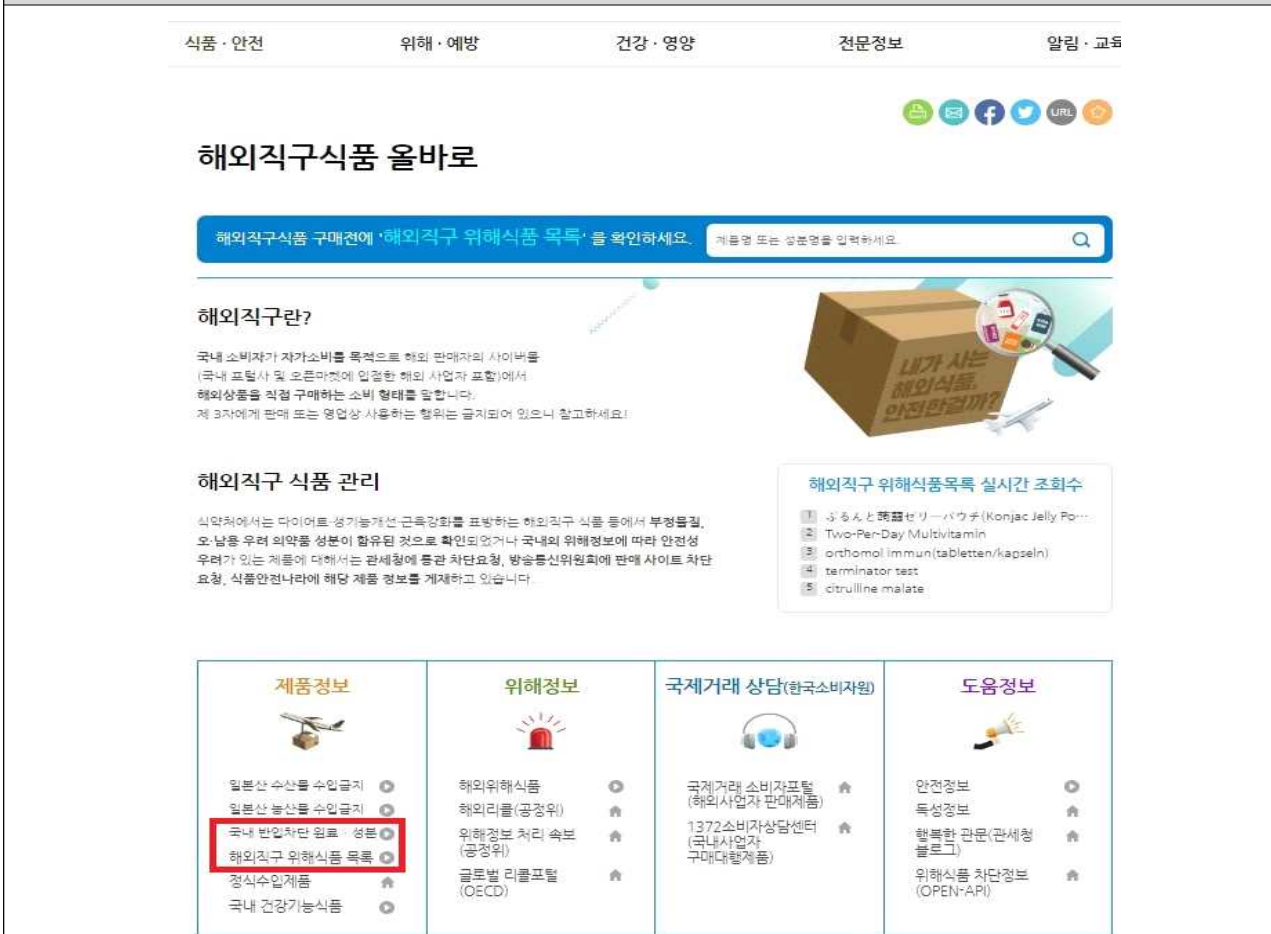
붙임 1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연번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국)	검출 성분	제품사진
1	UMARY Hyaluronic Acid	Especialidades Nutrition S.A. DE C.V.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메프라졸(Omeprazole) • 디클로페낙*(Diclofenac) 	

※ 디클로페낙(Diclofenac) :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로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출혈, 궤양 및 치명적인 위 및 장 천공을 포함한 심각한 위장관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해외식품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기지정('23.7.3.)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메인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바로가기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및 해외직구 위험식품 목록